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수업실연 실태조사*

오 지 향**

본 연구는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의 실태를 조사하고 보다 체계적인 수업실연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0개의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일반교직을 수강하는 3~4학년 360명을 대상으로 수업실연에 대한 현황 및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효과적인 수업실연을 위해서는 수업실연의 좋은 예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활동 영역별로 다양한 수업실연의 경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실연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교수·학습안 작성', '의사소통 능력', '교수자료 활용능력'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수업실연을 한 후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 수업준비와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교사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높게 나타났다.

※ 주제어: 중등 예비교사교육, 수업실연, 실천적 지식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실천적 지식
2. 수업실연과 마이크로티칭

III. 연구방법

1. 설문대상
2. 설문기간
3. 설문내용

IV. 설문결과분석

V. 결론 및 논의

* 이 논문은 2011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조교수(lakisis212@naver.com)

I. 서론

예비 음악교사 양성의 중요한 과제는 음악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 기간 중에 음악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상황을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미래에 현장에서 가르칠 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수업상황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Polanyi(1958)의 개인적 지식, Oakeshott(1962)의 기법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 Elbaz(1991)의 실천적 지식, Shulman(2000)의 교수내용지식(PCK) 등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Koehler & Mishra(2008)의 기술적 교수내용지식(TPCK)에 이르기까지 교실수업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 교사는 교과 지식 이외에 수업실행과정에서 경험적 지식과 암묵적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지식이 교사를 전문가로 인식하게 한다고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의 지식에 대한 개념 및 정의에 대한 연구보다는 현장에 근거하여 교실 수업에서 발휘되는 교사들의 교수내용지식이나 실천적 지식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김혜숙, 2006).

그 중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허경철, 조덕주, 소경희, 2001; Meijier, Zanting & Verloop, 2002; 김민정, 2006; Perkins, 2007). 실천적 지식이란 가르칠 내용과 방법 및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 지식들 간의 종합이라고 할 수 있다. 예비교사 교육에서 실천적 지식을 획득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교실현장과 경험이 비슷한 상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Pajares(1992)도 수업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예비교사의 직전교육(pre-service training)에서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 지식의 형성을 강조하였다.

정미경 (2007)은 예비 교사 양성교육에서의 좋은 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교육실습을 마친 예비교사들은 좋은 수업을 ‘교직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업’ ‘진행방식이 좋은 수업’ 과 ‘교과 교육학적 지식 형성에 도움이 되는 수업’으로 정의하였다. 즉 이론적

지식이 현장과 연계되었을 때 좋은 수업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대학교육에서 정의하는 좋은 수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론적 지식이 현장과 연계되었을 때 좋은 수업으로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양성과 임용, 능력개발 및 수업전념 여건 조성 등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 중에서 신규교사의 양성에 있어서는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임용시험 체제를 개편하였다. 이에 중등교사 신규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 3차 시험 중 하나인 수업실연시간이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되었으며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업실연의 배점을 약 10점씩 상향 조정하여 수업전문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처럼 예비 교사들에게 수업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미리 수업을 시연해보는 수업실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수업실연(teaching demonstration)은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 중에 교수·학습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교수하는 것으로 수업실연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 능력 뿐 아니라 실제 수업을 운영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은 실제 교실상황에서 가르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동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수업실연을 통해 수업을 하고 자신의 수업에 대한 분석 및 반성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 교육기관인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 형성에 중요한 수업실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체계적인 수업실연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사의 실천적 지식

전통적인 교사교육과정은 교사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무엇이고 그러한 지식은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따라서 예비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적 지식을 철저히 획득해야 전문적인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의 교육내용 보다는 학교 현장 및 실제 수업에서의 교수경험을 통해서 교육에 필요한 실제의 지식을 획득한다. 따라서 예비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내용과 과정에 대한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교사교육에서도 지식은 경험을 통해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지식관이 강조되고 있다(진성희, 2010). 예를 들어 Polanyi(1958)의 개인적 지식(personal knowledge), Schon(1983)의 행위중 반성(reflection-in-action), Elbaz(1991)의 실천적 지식, Clandinin & Connely (1998)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등은 바로 이런 경험적이며 실천적인 지식을 포현한 용어라 볼 수 있다.

Elbaz(1991)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교사는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암묵적 차원의 실제적 지식을 갖고 있음에 주목하고 내용, 정향 및 구조의 측면에서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용(content)은 실천적 지식이 무엇인가를 설명한다. 교사의 경력과 함께 누적되는 지식으로 교사자신에 대한 지식, 교수환경에 대한 지식, 교과에 대한 지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및 수업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또한 교사 자신의 실제적인 상황에 맞게 형성되면서 직접적, 간접적인 경험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정향(orientation)은 실천적 지식이 생성되고 사용되는 방법으로 상황적,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및 이론적 정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제의 교수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실천적 지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structure)에서는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

고 반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직접 실천을 해보고 교사나 학생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이 실천적 지식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표 1> 실천적 지식의 범주 및 내용

범주	내용	비고
내용 (content)	교사자신, 교수환경, 교과, 교육과정, 수업	-교직경력과 함께 누적됨. -교수기법의 장단점 및 학생의 학습스타일들 직,간접적인 경험들을 포괄함. -자신의 실제적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형성됨.
정향 (orientation)	상황적,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이론적	-실제의 교수경험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게 됨
구조 (structure)	실천의 규칙, 실천의 원리, 실천의 이미지	-교사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 반성의 방식으로 나타남. -교사는 좋은교사, 수업, 학생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교사의 지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침.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중요성은 미국에서 신규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지식, 성향과 수행에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신규교사 평가 및 지원협회(INTASC: The Interstate New Teachers Assessment and Support Consortium)에서 신규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밝히고 신규교사가 보여주어야 하는 성과를 발표했다. 이는 신규 교사의 전문성 계발을 위한 표준모형을 제공하며 예비교사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을 위해 새로 개정된 기준(Model Core Teaching Standards, 2011)은 5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다양한 학습자들을 위한 개인별 학습을 강조한다. 학생들의 성, 문화, 능력, 지식습득 방법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수학습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지식과 기능의 적용에 대한 강조이다. 이를 위해 소통전략, 협력, 비판적 사고 및 테크놀로지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는 평가능력의 계발이다, 다양한 평가

방법의 활용으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data-informed decision) 평가의 활용을 중요시 하고 있다. 네 번째는 다른교사와의 협력체제구축이다. 공유된 지식을 통해 공통의 목적을 규명하고 이 목적을 위한 성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새로운 리더쉽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규교사가 그들의 직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자신을 리더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전문성을 달성하도록 한다. 새로 개정된 기준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 교과내용을 적용하고, 실천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에 있어서 주도권을 주는 것이다.

백순근 외(2007)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갖추어야 하는 실천적 지식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업의 계획과 조직능력,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능력, 교수·학습환경 조성 능력 및 성의와 열의로 제시하였다.

음악교사도 음악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교과지식 이외에 실제적이고도 실천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경언(2007)의 연구에서 음악교사는 고정된 지식이 아닌 실제수업에서의 동화와 조절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한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음악수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음악행위와 음악지식은 기본전제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의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전문성에 기초한 통합음악수업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예비음악교사 양성교육에서도 교육실습 이전에 수업실연을 통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실천적 지식의 경험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2. 수업실연과 마이크로 티칭

수업실연(teaching demonstration)은 예비교사들이 교육과정 중에 교수·학습안을 작성하고 실제로 교수하는 것으로 수업발표, 모의수업, 수업시연, 수업실연 및 수업실행으로 불리고 있다. 김원정(2010)은 수업시연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전의 시험적 의미가 강한 만큼 제일 먼저 이루어지

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수업실연은 실제 무대에서의 공개의 의미를 가지므로 공식적인 특성이 비교적 크다고 하였다. 수업실행은 현직교사로서 현장에 나가 실제 수업을 실행하는 것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업실연의 한 형태로 마이크로티칭(microteaching)이 활용되고 있는데 마이크로티칭은 교사들의 수업행동 개선을 위해 실제 수업을 여러 차원에서 압축, 축소하여 수업하는 과정을 녹화하고 재생한 다음 피드백을 통해 부족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법이다(Allen et al, 1969; Macleod, 1987; Cruickshank, 1985; 조영남, 2011; McIntyre et al, 1996). Burden & Byrd(2007)는 마이크로티칭을 예비교사들이 동료들 대상으로 비언어적 교수, 질문, 동기유발 등의 구체적인 수업행동을 시연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압축된 수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이크로티칭의 원래 목적은 예비교사들에게 시범을 보여준 다음 그 기능을 따라 실행하며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한된 기능이었으나 현재는 포괄적인 수업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에게 다양한 수업기능을 연습도록 할수 있다(조영남, 2011).

마이크로티칭의 장점은 예비교사들이 수업기능을 연습하고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도록 도와주며 다른 동료들을 평가할 수 있으며 마이크의 효과를 통한 다른 교사교육 방법과 비교할 수 있다는데 있다(Amobi & Irwin, 2009).

마이크로티칭에서 중요한 것은 모의된 상황에서 실제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 하는것과 피드백을 통한 분석과 반성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기능의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인 준비와 질문이 필요하다. 첫째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어떤 수업기능을 개발할 것인가. 둘째, 누가 수업지도안을 개발하며 수업형태는 실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형태인가 아니면 동료들을 가르치는 형태인가. 셋째 수업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누가 수업을 평가할 것이며 평가자들에게 평가방법을 교육시킬 필요한 있는가이다.

또한 피드백은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반석을 통해 재수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드백의 형태는 비디오테이프를 활용하며, 자기평

가, 동료평가 및 평가전담자를 지정하여 피드백을 하는 형태와 이 중 몇가지를 혼합하는 형태가 있다(Jensen, 1974; 유혜령 역, 1996). 이처럼 마이크로티칭을 실시하기 전에 목표와 내용, 시간, 대상, 수업형태, 피드백 형태, 기자재 등에 대한 사전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조영남, 2011).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교육에서의 마이크로티칭 적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수업을 같이 듣는 동료들을 대상으로 수업지도안을 구안한 후 음악시범을 포함하여 수업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한다. 동료들은 평가양식에 의해 평가를 한다. 수업을 마친 후 비디오를 분석하여 자신의 수업을 반성하고 평가양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재수업에 수정 보완하는 형태의 체계적인 수업실연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설문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등 예비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교와 교육대학원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의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360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실연에 대한 현황과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360명은 전국 10개 대학의 사범대학교와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3, 4 학년이다(표 2). 이는 교육실습을 마친 학생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수업실연을 하고 있는 <음악과 교재연구 지도법>이나 <음악과 교수법>등의 과목을 수강하고, 또한 교직과목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을 수강 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2> 설문대상

학교	인원 (명)			
	사범대	교육대학원	비사범대 일반교직	전체
건국대학교	23			23
공주대학교	23	39		62
목원대학교	37			37
서원대학교	25	9	4	38
성신여자대학교		24		24
전남대학교	28	19		47
조선대학교	20	22		42
청주대학교	29			29
한국교원대학교	31	3	1	35
한양대학교		23		23
	216	139	5	360

2. 설문기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계절제 수업이 있는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2011년 7월부터 9월까지 세 달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1년 6월 27일에 설문지를 발송하여 2011년 9월 30일까지 응답결과를 반송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3. 설문내용

본 연구의 설문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사항에 관련된 문항 4개와 수업실연 현황조사를 위한 문항 16개(하위문항포함)와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한 문항 28개로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첫째, 기초조사, 둘째, 수업실연 현황, 셋째, 수업실연에 대한 견해 및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인 기초조사에서는 성별, 소속, 전공 및 수업실연을 했던 과목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영역에서는 수

업실연의 현황을 보고자 수업실연의 형태, 준비, 실행 및 평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수업실연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견해와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의 소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수업실연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고자 예비교사 양성교육으로서의 수업실연 형태 및 마이크로티칭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리고 수업실연이 교생실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은 수업실연 후에 수업의 계획과 조직, 교과지식, 의사소통능력, 교수학습 환경조성, 교사의 역할 및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 즉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 여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3> 설문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문항수
기초조사	• 성별, 소속, 전공, 수업실연과목		4
수업 실연 현황	• 수업실연 형태(개인/모둠, 시간, 비디오촬영)		5
	• 수업실연 준비		1
	• 수업실연 실행(제재곡, 활동영역, 음악시범여부)		5
	• 수업실연 평가(평가양식, 평가주체, 피드백)		5
수업 실연에 대한 견해 및 인식	수업 실연에 대한 견해	• 예비교사육과정으로서 수업실연 형태	3
		• 마이크로티칭 인지	2
		• 교육실습에의 도움 여부	2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	• 수업의 계획과 조직에 대한 이해	5
		• 교과지식에 대한 이해	5
		•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이해	1
		• 교수학습환경조성에 대한 이해	2
		•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이해	3
		•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	3
		• 전반적인 도움 여부	2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에 관한 설문문항은 예비교사들의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을 평정할 수 있는 척도로서 중등 예비교사들의 실천적 교수역량

(백순근 외, 2007)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에서 개발한 <교원수업전문성 일반기준>을 재구성하여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예비교사들의 실천적 교수역량 척도는 5개의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인은 3개의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계획과 조직(내용간의 상호연계, 학습내용의 분량과 난이도, 시간배분의 적절성), ②의사소통능력(언어적 의사소통,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업 보조자료활용), ③학생과의 상호작용(적절한 질문과 대답 유도, 학습동기 유발, 적절한 피드백), ④교수·학습 환경 조성(주의집중, 교육적 분위기 조성, 물리적 환경조성), ⑤성의와 열의(수업준비도, 수업에 대한 몰입, 학생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백순근, 함은혜, 2007). 교원수업 전문성 일반기준은 “좋은 수업을 정의하는 교수기준(Teaching standards)으로서 학교급, 교과영역을 막론하고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정의한 것”(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P.7)으로 공교육 현장의 관점에서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기준들을 제시한 것이다.

IV. 설문분석결과

본 연구에 응답한 설문지는 데이터 코딩, 편집과정을 거쳐 SPSS Ver. 17.0 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에서 교차분석과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업실연 현황 및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소속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중 수업실연 준비 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항, 수업실연 시 가장 어려웠던 점, 수업실연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수업실연이 교육실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문항에서는 순위의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성별은 ‘여성’이 87.8%로 ‘남성’ 12.2%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속은 ‘사범대학’ 6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교육대학원’ 38.6%, ‘비사범대 일반교직’ 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여성	316	87.8
	남성	44	12.2
소속	사범대학	216	60.0
	교육대학원	139	38.6
	비사범대 일반교직	5	1.4
전공	서양음악(기악)	224	62.2
	서양음악(성악)	65	18.1
	서양음악(작곡, 이론)	32	8.9
	국악(기악)	25	6.9
	국악(성악)	9	2.5
	국악(작곡, 이론)	1	0.3
	기타	4	1.1
합계		360	100.0

전공별로는 ‘서양음악(기악)’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양음악(성악)’ ‘서양음악(작곡, 이론),’ ‘국악(기악),’ ‘국악(성악),’ ‘기타,’ 와 국악(작곡, 이론) 순으로 나타났다(표 3). 기타전공으로는 컴퓨터 음악과 음악교육 전공이 포함되었다.

<표 5>의 수업실연 과목에 대한 분석결과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이 7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악교육론’ 20.7%, ‘기타’

9.9%, ‘음악과 교육과정 및 평가’ 9.6%, ‘교육공학’ 6.3%, ‘음악과 논리 및 논술’ 3.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은 음악교수법, 국악실기, 성악실기 지도법, 한국음악사 및 서양음악사, 교육의 사회학 과목에서 수업실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수업실연 과목

구분		빈도	비율(%)
과목	음악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264	79.3
	음악교육론	69	20.7
	음악과 교육과정 및 평가	32	9.6
	교육공학	21	6.3
	음악과 논리 및 논술	13	3.9
	기타	33	9.9
합계		333	100.0

2. 수업실연 현황

1) 수업실연 형태

수업실연 형태 영역은 개인/모듬의 여부와 수업실연 시간 및 비디오 촬영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업 실연의 진행 형태에 대한 결과는 각각 <표 6>, <표 7>과 같다. 수업실연은 ‘혼자 준비하고 혼자 발표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두/세 명이 준비하고, 대표로 한명이 발표하였다’, ‘두/세 명이 준비하고 각자 맡은 부분을 발표하였다’ 순으로 나타났다.

수업실연 시간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10분 이상~20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분 이상~30분 미만’, ‘30분 이상’, ‘10분 미만’,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때마다 다르다는 응답

과 45분이나 50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시간 수업 전체를 수업실연 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10분 이상~2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변인별 유의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수업실연 형태

구분		혼자 준비, 혼자 발표	두/세명이 준비, 대표 한명이 발표	두/세명이 준비, 각자 맡은 부분 발표	기타	유의확률
사범 대학	빈도	173	25	16	2	$\chi^2=5.196$ $p=0.519$
	(%)	80.1	11.6	7.4	0.9	
교육 대학원	빈도	101	24	14	0	
	(%)	72.7	17.3	10.1	0.0	
일반 교직	빈도	4	1	0	0	
	(%)	80.0	20.0	0.0	0.0	
전체	빈도	278	50	30	2	
	(%)	77.2	13.9	8.3	0.6	

<표 7> 수업실연 시간

구분		10분 미만	10분 이상~ 20분 미만	20분 이상~ 30분 미만	30분 이상	기타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16	105	58	31	5	$\chi^2=8.354$ $p=0.400$
	(%)	7.4	48.8	27.4	14.4	2.3	
교육 대학원	빈도	15	60	31	30	3	
	(%)	10.8	43.2	22.3	21.6	2.2	
비사범대 일반교직	빈도	0	3	0	2	0	
	(%)	0.0	60.0	0.0	40.0	0.0	
전체	빈도	31	168	89	63	8	
	(%)	8.6	46.8	24.8	17.5	2.2	

수업실연 시 비디오 촬영 여부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그렇지 않다’가 53.1%로 ‘그렇다’ 4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그렇다’가 50.5% 높게 나타났고, 교육대학원과 일반교직에서는 ‘그렇지 않다’가 각 58.3%, 60.0%로 높게 나타났으며, 변인별 유의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기타의견으로 ‘비디오 촬영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답을 하였다.

<표 8> 비디오 촬영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109	107	$\chi^2=2.690$ $p=0.261$
	(%)	50.0	49.5	
교육대학원	빈도	58	81	
	(%)	41.7	58.3	
일반교직	빈도	2	3	
	(%)	40.0	60.0	
전체	빈도	169	191	
	(%)	46.9	53.0	

비디오 촬영한 내용을 분석한 후 다시 수업을 진행하였는가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그렇지 않다’가 68.6%로 ‘그렇다’ 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일반교직에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의 응답이 같게 나타났으며, 변인별 유의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9). 이는 이 문항에서는 일반교직 학생 2명이 답을 해주었고 각각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 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50%가 나왔기 때문이다. 대부분 비디오 촬영을 분석하고 다시 수업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비디오 촬영 내용 분석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42	67	$\chi^2=8.298$ p=0.016
	(%)	38.5	61.5	
교육대학원	빈도	10	48	
	(%)	17.2	82.8	
일반교직	빈도	1	1	
	(%)	50.0	50.0	
전체	빈도	53	116	
	(%)	31.4	68.6	

<표 10>에 의하면 비디오 촬영의 도움정도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60% 이상의 학생들은 비디오 촬영이 도움이 된다고 답을 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들도 있었는데, 비디오 촬영을 한 후 다시 본인이 분석하고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 10> 비디오 촬영 도움 정도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빈도	3	11	53	72	29
	(%)	1.8	6.5	31.5	42.9	17.3

2) 수업실연 준비

수업실연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항에 대한 순위별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수업실연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항의 총점을 계산한 결과 ‘교과내용 지식 전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 ‘교수학습 안에 의한 진행’,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동기유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수업실연 준비 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항

구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 일반교직	전체
	총점	총점	총점	총점
교과내용 지식 전달	226	171	10	407
의사소통능력	217	110	3	330
교수학습 안에 의한 진행	170	118	5	293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175	115	0	290
동기유발	132	79	0	211
학습분위기 조성	111	45	0	156
학생의 참여기회 제공	85	67	1	153
음악시범 능력	65	48	5	118
수업시간조절	55	34	4	93
효과적인 질문의 사용	44	20	2	66
기타	3	0	0	3

※ 총점 = 1순위 * 3 + 2순위 * 2 + 3순위 * 1

수업실연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항에 대한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 ‘교과내용 지식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업실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 2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교직에서는 ‘교수학습 안에 의한 진행’, ‘교과내용 지식 전달’, ‘의사소통능력’, ‘음악시범 능력’이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소속별 3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의사소통능력’과 ‘학생의 참여기회 제공’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대학원에서는 ‘학생의 참여기회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교직은 ‘교과내용 지식 전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내용지식을 중점으로 두고 학습자가 다양한 활동으로 참여하게 해야한다’고 답하였다.

3) 수업실연 실행

수업실연 실행 영역은 수업실연을 했던 제재곡 (서양악곡/국악곡), 활동 영역(가창, 기악, 창작, 감상, 이론, 생활화) 및 음악시범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실연에 사용한 제재곡은 다음 <표 12>와 같다. 수업실연에서는 사범대 및 교육대학원 학생들은 서양음악 제재곡을 많이 사용했으며 일반 교직에서는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12> 수업실연에 사용한 제재곡

구분		서양음악 제재곡	국악 제재곡	그 외
사범대학	빈도	170	69	29
	%	47.2	19.2	8.1
교육대학원	빈도	84	38	32
	%	23.3	10.6	8.9
일반교직	빈도	3	3	0
	%	0.8	0.8	0.0
전체	빈도	257	110	61
	%	71.4	30.6	16.9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수업실연 내용의 주된 음악영역 활동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모든 소속 학생들은 음악활동 영역 중에서 노래부르기, 가창을 가장 많이 수업실연 하였고, 다음으로 감상하기, 음악이론, 악기 연주하기, 음악만들기의 순서로 수업실연을 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말리듬 짓기, 리듬창작, 창의적 활동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표 13> 수업실연 내용의 주된 음악영역

구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하기	감상 하기	음악 만들기	음악 이론	생활화	기타
사범대학	빈도	149	45	98	24	81	14	6
	%	41.6	12.6	27.4	6.7	22.6	3.9	1.7
교육대학원	빈도	61	43	57	18	45	14	7
	%	17.0	12.0	15.9	5.0	12.6	3.9	2.0
일반교직	빈도	4	1	1	0	1	0	0
	%	1.1	0.3	0.3	0.0	0.3	0.0	0.0
전체	빈도	214	89	156	42	127	28	13
	%	59.8	24.9	43.6	11.7	35.5	7.8	3.6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수업실연에 음악시범의 포함 여부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그렇다’가 81.2%로 ‘그렇지 않다’ 18.8%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4).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실연을 할 때 직접 음악시범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수업실연에 음악시범 포함 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chi^2=2.378$ $p=0.305$
사범대학	빈도	178	37	
	%	82.8	17.2	
교육대학원	빈도	107	30	
	%	78.1	21.9	
일반교직	빈도	5	0	
	%	100.0	0.0	
전체	빈도	290	67	
	%	81.2	18.8	

어떠한 음악시범이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실연 중 가창을 하였고, 다음으로 피아노, 장구, 기타, 리코더, 오카리나의 순서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리듬악기, 가야금, 금

관악기, 북, 사물놀이 악기, 몸타, 플룻, 창작극, 지휘, 바이올린, 첼타, 오르프 악기, 쟁배, 콘트라베이스등의 다양한 응답이 나타났다.

<표 15> 음악시범 종류

구분		가창	피아노	리코더	오카리나	기타(악기)	장구	단소	대금	기타
사범대학	빈도	145	119	17	3	17	42	9	1	12
	%	45.7	37.5	5.4	0.9	5.4	13.2	2.8	0.3	3.8
교육대학원	빈도	68	57	7	2	8	26	9	2	12
	%	21.5	18.0	2.2	0.6	2.5	8.2	2.8	0.6	3.8
일반교직	빈도	4	1	0	0	0	2	0	0	0
	%	1.3	0.3	0.0	0.0	0.0	0.6	0.0	0.0	0.0
전체	빈도	217	177	24	5	25	70	18	3	24
	%	68.5	55.8	7.6	1.6	7.9	22.1	5.7	0.9	7.6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수업실연에 음악시범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다른 교수학습 매체를 이용하기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이론 수업이어서', '서양음악 전공인데 국악 제재곡을 가르쳐야해서', '연주 능력에 자신이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순으로 답해주었다. 기타의견으로는 가창에 자신이 없어서, 이미 음원이 나와 있어서, 혼자서는 연주할 수 없는 곡이라서, 감상 또는 창작 수업이어서 및 학생이 주도적으로 하는 수업이어서 음악시범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16).

<표 16> 수업실연에 음악시범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구분		시간이 부족 해서	이론 수업 이어서	다른 교수학습 매체를 이용 하기위해	서양음악 전공인데 국악 제재곡을 가르쳐야 해서	연주 능력에 자신 없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기타
사범 대학	빈도	31	29	29	14	11	5	2
	%	20.0	18.7	18.7	9.0	7.1	3.2	1.3
교육 대학원	빈도	17	14	23	10	9	3	5
	%	11.0	9.0	14.8	6.5	5.8	1.9	3.2
일반교직	빈도	1	0	0	0	1	0	0
	%	0.6	0.0	0.0	0.0	0.6	0.0	0.0
전체	빈도	49	43	52	24	21	8	7
	%	31.6	27.7	33.5	15.5	13.5	5.2	4.5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가 20.0%, 교육대학원에서는 ‘다른 교수학습 매체를 이용하기위해’가 14.8%, 일반교직에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연주능력에 자신 없어서’가 각 0.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수업실연 평가

수업실연 평가 영역은 수업실연 할 때 평가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평가자에 대한 질문(자기, 동료, 교수), 평가양식 여부에 대한 질문 및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실연의 평가여부에 질문에는 87.2%가 평가하고 있었으며 12.8%는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이 중 68.6%가 평가양식이 있었으며 31.4%는 평가양식을 따로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수업실연을 위한 평가양식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124	67	$\chi^2=3.577$ p=0.167
	(%)	64.9	35.1	
교육대학원	빈도	87	29	
	(%)	75.0	25.0	
일반교직	빈도	3	2	
	(%)	60.0	40.0	
전체	빈도	214	98	
	(%)	68.6	31.4	

수업실연 시 누가 평가했는지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18>과 같다. 수업실연 평가는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담당교수', '본인 스스로',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응답으로는 교사가 평가했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담당교수가 주로 하였고, 교육대학원과 일반교직에서는 수강하는 동료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표 18> 수업실연 평가자

구분		본인 스스로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	담당교수	기타
사범대학	빈도	82	132	142	2
	(%)	26.1	42.0	45.2	0.6
교육대학원	빈도	36	90	67	2
	(%)	11.5	28.7	21.3	0.6
일반교직	빈도	1	5	3	0
	(%)	0.3	1.6	1.0	0.0
전체	빈도	119	227	212	4
	(%)	37.9	72.3	67.5	1.3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수업실연 평가의 시기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수업실연 후'가 75.8%로 '수업실연 중' 27.1%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수업실연 후'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표 19).

<표 19> 수업실연 평가 시기

구분		수업실연 중	수업실연 후
사범대학	빈도	42	154
	(%)	(13.4)	(49.0)
교육대학원	빈도	41	81
	(%)	(13.1)	(25.8)
일반교직	빈도	2	3
	(%)	(0.6)	(1.0)
전체	빈도	85	238
	(%)	(27.1)	(75.8)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가장 도움이 된 수업실연 평가자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담당교수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그 다음으로 수강하는 동료학생들로 나타났다. 기타는 교사라고 답을 하였는데 이는 팀티칭으로 현장교사가 수업실연을 지도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모든 소속에서 담당교수가 평가한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20> 가장 도움이 된 수업실연 평가자

구분		본인 스스로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	교수	기타
사범대학	빈도	21	86	124	8
	(%)	(6.8)	(27.7)	(39.9)	(2.6)
교육대학원	빈도	10	57	59	4
	(%)	(3.2)	(18.3)	(19.0)	(1.3)
일반교직	빈도	1	2	2	0
	(%)	(0.3)	(0.6)	(0.6)	(0.0)
전체	빈도	32	145	185	12
	(%)	(10.3)	(46.6)	(59.5)	(3.9)

※ 위 문항은 다중응답 처리되었음.

3. 수업실연에 대한 견해 및 인식

1) 수업실연에 대한 견해

(1) 예비교사 양성과정으로서 수업실연 형태

예비교사 양성으로서의 수업실연영역은 교육기간 동안 적당한 수업실연 횟수에 대한 질문, 수업실연 준비시 어려웠던 점과 수업실연 진행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예비 음악교사 교육에서 한 학기에 적당한 수업실연 횟수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한 학기에 2회’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인별 유의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의견은 가능한 많이 하면 좋겠다. 다양한 영역에서 많이 할수록 좋다 는 의견 및 한번을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갖고 실제 수업처럼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수업실연 이후 평가도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표 21> 예비 음악교사 교육 시 적당한 수업실연 횟수

구분		한 학기에 1회	한 학기에 2회	한 학기에 3회	여러 학기에 걸쳐 각 학기당 1회 이상	기타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38	90	36	46	4	$\chi^2=28.745$ $p=0.000$
	%	17.8	42.1	16.8	21.5	1.9	
교육대학원	빈도	50	51	10	22	4	
	%	36.5	37.2	7.3	16.1	2.9	
일반교직	빈도	0	3	1	0	1	
	%	0.0	60.0	20.0	0.0	20.0	
전체	빈도	88	144	47	68	9	
	%	24.7	40.4	13.2	19.1	2.5	

수업실연 시 가장 어려웠던 점을 3순위로 고르라는 문항의 총점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22>와 같다. ‘교수·학습안 작성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방법을 알지 못함’,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라 더 긴장됨’, ‘교수·학습안을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움’, ‘수업시간 조절이 어려움’ 순으로 나타났다.

소속별 1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비사범대 일반교직에서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방법을 알지 못함’이 높게 나타났고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수·학습안 작성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소속별 2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수·학습안 작성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 3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라 더 긴장됨’, 교육대학원에서는 ‘수업시간 조절이 어려움’과 일반교직에서는 ‘교수·학습안 작성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수업실연 시 가장 어려운 점

구분	사범대학	교육 대학원	비사범대 일반교직	전체
	총점	총점	총점	총점
교수·학습안 작성의 어려움	241	177	4	422
처음 해보는 것이라 방법을 알지 못함	240	125	10	375
수강하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것이라 더 긴장됨	210	151	3	364
교수·학습안을 계획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움	122	79	5	206
수업시간 조절이 어려움	78	67	3	148
수업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86	46	0	132
익숙한 환경이라 실제 수업 같지 않음	84	40	5	129
수업자료(ppt, 활동지) 제작의 어려움	54	40	0	94
음악적 시범이 자신 없음	57	20	0	77
컴퓨터 사용과 수업을 동시에 하기 어려움	36	33	0	69
시선배분이 어려움	44	20	0	64
목소리 크기 조절이 어려움	15	6	0	21
기타	11	2	0	13

효과적인 수업실연을 위해 필요한 사항 3순위에 대한 총점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학생들은 수업실연을 하기 위해 좋은 예시가 필요하고 수업실연의 기회를 늘려야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수·학습안 작성을 미리 배워야 한다, 비디오촬영을 하고 분석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와 다양한 악곡으로 수업실연을 해보는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23> 효과적인 수업실연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 일반교직	전체
	총점	총점	총점	총점
수업실연의 좋은 예시가 필요함	289	207	14	510
수업실연의 기회를 늘려야 함	280	132	1	413
교수·학습안 작성을 미리 배웠으면 함	173	158	5	336
비디오 촬영을 하고 분석하는 기회가 필요함	144	84	1	229
다양한 악곡으로 수업실연을 해봤으면 함	118	78	4	200
수업실연 평가에 대한 기준을 미리 공개해야 함	101	80	3	184
자기평가, 동료평가를 모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118	51	2	171
수업실연에 활용할 다양한 악기 구비	42	27	0	69
기타	4	4	0	8

기타의견으로 수강하는 학생들 앞이라 전혀 현실감이 없고 피드백도 교과서적인 면이 있고 평가당하는 느낌이 크다, 음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수업실연하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2) 마이크로 티칭

학생들에게 마이크로티칭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이크로티칭의 인지여부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마이크로티칭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응답자들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는 마이크로티칭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더 많은 반면 일반교직에서는 마이크로티칭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표 24> 마이크로티칭의 인지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chi^2=4.501$ $p=0.105$
사범대학	빈도	48	166	
	%	22.4	77.6	
교육대학원	빈도	38	100	
	%	27.5	72.5	
일반교직	빈도	3	2	
	%	60.0	40.0	
전체	빈도	89	268	
	%	24.9	75.1	

마이크로티칭의 정보입수경로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학생들은 대부분 교직과목을 통해 마이크로티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며 다음으로 임용학원, 인터넷, 교양과목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교직과목을 통해 마이크로티칭의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정보입수경로

구분		교직 과목	교과 교육	교양 과목	임용 학원	인터 넷	전문 서적	기타	유의확률 $\chi^2=28.745$ $p=0.000$
사범대학	빈도	31	1	2	6	3	4	0	
	%	66.0	2.1	4.3	12.8	6.4	8.5	0.0	
교육대학원	빈도	22	0	2	4	6	0	4	
	%	57.9	0.0	5.3	10.5	15.8	0.0	10.5	
일반교직	빈도	2	0	1	0	0	0	0	
	%	66.7	0.0	33.3	0.0	0.0	0.0	0.0	
전체	빈도	55	1	5	10	9	4	4	
	%	62.5	1.1	5.7	11.4	10.2	4.5	4.5	

(3) 교육실습에의 도움 여부

교육실습 시 수업실연의 도움여부에 대한 전체 빈도분석 결과 ‘그렇다’가 94.4%로 ‘그렇지 않다’ 5.6%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업실연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속별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수업실연이 교육실습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26> 교육실습 시 수업실연의 도움여부

구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유의확률
사범대학	빈도	170	9	$\chi^2=0.773$ $p=0.679$
	%	95.0	5.0	
교육대학원	빈도	93	7	
	%	93.0	7.0	
일반교직	빈도	5	0	
	%	100.0	0.0	
전체	빈도	268	16	
	%	94.4	5.6	

교육실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수업실연을 통해 교수·학습안 작성에 대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고, 다음으로 의사소통 과 교수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7> 교육실습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구분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비사범대 일반교직	전체
	총점	총점	총점	총점
교수·학습안 작성	256	156	11	423
의사소통능력	168	64	1	233
교수자료 활용 능력	121	93	5	219
음악교과에 대한 이해	105	73	3	181
음악시범 능력	101	61	3	165
긴장이 덜 됨	79	32	4	115
학습분위기 조성 능력	81	23	2	106
효율적인 발문 능력	55	21	0	76
시간조절 능력	41	20	1	62
기타	0	3	0	3

소속별 1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모든 소속에서 ‘교수·학습안 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별 2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에서는 ‘교수·학습안 작성’과 ‘교수자료 활용 능력’이,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수·학습안 작성’, 일반교직에서는 ‘교수자료 활용 능력’이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 3순위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수자료 활용 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였다고 답하였다.

2)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조사는 6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수업실연 후에 수업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이론적 지식 외에 필요한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내용이다. 문항의 내용은 수업의 계획과 조직, 음악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 교수학습 환경조성, 교사의 역할 이해, 수업평가에 대한 이해이다. 마지막으로 수업실연을 통해 전반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에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표 28>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실연을 한 후 수업준비와 더불어 교수·학습 작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업준비 중요성의 이해정도에 대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교재연구의 중요성 및 ppt나 동영상같은 자료제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높은 이해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실연을 한 후에 교과지식 및 음악수업 전반에 대해 이해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수업 중에 음악적 시범(modeling)이 중요한지에 대하여 사범대, 교육대학원 및 교직 학생들 모두 ‘그렇다’가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28.3%로 나타나서 시범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수업실연 후 자신의 교과지식에 대한 수준 및 음악 시범 실력을 알게 되었다가 모두 높게 분포되어있다.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정도의 전체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업실연을 한 후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 시간조절 및 학습분위기 조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이다 또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많이 나타났다.

교사 역할 및 교수·학습안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정도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실연 후에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정도의 전체 빈도분석 결과 ‘매우 그렇다’가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다’ 40.9%, ‘보통이다’ 12.8%, ‘그렇지 않다’ 3.1%, ‘전혀 그렇지 않다’ 0.8%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업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실연 후 가르치는 일에 대한 자신감여부의 전체 빈도분석 결과 ‘보통이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두 번의 수업실연 경험으로 수업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지만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석된다.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평가가 동료평가보다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이는 일부 학생들은 동료평가방식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소속별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도움정도의 전체 빈도분석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관찰하는 것과 다른 학생들이 제시하는 활동지나 동영상등은 매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인식

분류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획과 조직	교수·학습안 작성의 중요성	빈도	6	17	57	164	114
		(%)	1.7	4.7	15.9	45.8	31.8
	수업 준비의 중요성	빈도	4	11	38	128	179
		(%)	1.1	3.1	10.6	35.6	49.7
	수업의 논리적 흐름의 중요성	빈도	5	18	64	169	104
		(%)	1.4	5.0	17.8	46.9	28.9
	교재연구의 중요성	빈도	5	19	65	160	111
		(%)	1.4	5.3	18.1	44.4	30.8
	자료(동영상, ppt) 제시의 중요성	빈도	5	13	68	162	111
		(%)	1.4	3.6	18.9	45.1	30.9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	교과지식에 대한 중요성	빈도	6	20	73	195	64
		(%)	1.7	5.6	20.4	54.5	17.9
	음악 시범(modeling)의 중요성	빈도	4	17	54	183	102
		(%)	1.1	4.7	15.0	50.8	28.3
	음악수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	빈도	4	24	84	189	59
		(%)	1.1	6.7	23.3	52.5	16.4
의사소통 능력	교과지식에 대한 본인의 수준 이해	빈도	5	17	56	194	87
		(%)	1.4	4.7	15.6	54.0	24.2
	음악 시범에 대한 본인의 실력 이해	빈도	5	21	59	193	82
		(%)	1.4	5.8	16.4	53.6	22.8
교수 학습 환경	의사소통기술(목소리, 강약, 자세, 시선 등)의 중요성	빈도	5	17	39	153	145
		(%)	1.4	4.7	10.9	42.6	40.4
	시간조절의 중요성	빈도	7	16	57	168	112
		(%)	1.9	4.4	15.8	46.7	31.1
	학습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	빈도	7	20	54	152	126
		(%)	1.9	5.6	15.0	42.3	35.1
교사의 역할 이해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빈도	5	18	60	190	87
		(%)	1.4	5.0	16.7	52.8	24.2
	수업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	빈도	3	11	46	147	152
		(%)	0.8	3.1	12.8	40.9	42.3
	수업실연 후 자신감 변화	빈도	7	33	141	134	45
		(%)	1.9	9.2	39.2	37.2	12.5
수업 평가	동료평가 도움여부	빈도	8	32	112	137	71
		(%)	2.2	8.9	31.1	38.1	19.7
	동료평가의 공정성	빈도	9	40	141	124	46
		(%)	2.5	11.1	39.2	34.4	12.8
	자기평가 도움여부	빈도	6	33	114	148	58
		(%)	1.7	9.2	31.8	41.2	16.2
전반적 도움 여부	다른 학생들이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 도움됨	빈도	4	17	67	173	99
		(%)	1.1	4.7	18.6	48.1	27.5
	다른 학생들이 제공하는 학습 자료가 도움됨	빈도	4	21	101	154	80
		(%)	1.1	5.8	28.1	42.8	22.2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중등 예비교사 교육과정에서 실시되는 수업실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360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실연의 현황과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수업실연은 대부분 ‘혼자 준비하고 혼자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며, 담당교수가 정한 수업실연 시간은 ‘10분 이상~20분 미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수업시간보다 상당히 축소된 시간이라는 하지만 마이크로티칭의 활용방안처럼 구체적인 수업목표, 수업내용, 고도로 압축된 실제 수업상황의 전제, 수업결과의 확인과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수업실연 내용을 비디오 촬영한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및 비디오 촬영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실연 평가는 ‘교수’가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수업실연 전에 구체적인 평가양식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방법도 교육을 받는 등의 방법이 포함된다면 수업실연은 더욱 효과적이 될 것이다. 또한 수업실연은 발표가 아니라 실제로 수업하는 것처럼 준비해야함을 주지시켜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업실연 준비 시 ‘교과내용 지식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실연에 음악시범을 포함하였고 그 중에서는 노래와 피아노 반주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시범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교수학습 매체를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답을 하였는데 음악수업에서는 실음을 들려주고, 실제의 교사연주를 제공해야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수업실연 준비 시 ‘교과내용 지식 전달’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실연은 한 학기에 2회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효과적인 수업실연을 위해서는 수업실연의 좋은 예시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용 웹사이트에 ‘좋은수업’으로

선정되어 탑재된 음악수업 동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음악수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마이크로티칭의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교직 과목’을 통해 마이크로티칭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수업실연이 교육실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여러 응답 중에서 ‘교수·학습안 작성’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수업실연에 대한 인식도 및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실연을 경험 한 후에 수업준비와 의사소통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고 특히 교사 전문성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수업실연 운영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과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실연 후 자신들의 교과지식 및 자신들의 음악수준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졌다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음악적 지식 및 수업 내용의 이해정도는 다른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상황이 되었을 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수업실연 후에 주로 목소리의 크기와 속도를 비롯하여 시선처리 및 자세등 수업의 외형적인 부분만 평가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수업의 핵심인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음악지식에 대한 이해 및 전달 또한 평가해야한다. 즉, 수업실연의 기회를 통해서 음악지식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해를 높여야 한다.

둘째, 실천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Perkins(2007)는 이론적 지식만 양성하는 교사양성교육과정을 비판하면서, 그 동안 예비교사들에게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고 누적시킬 경우 실천적 지식은 자동으로 생길 수 있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대부분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음악영역에서의 수업실연을 통해서 가능한 실제와 비슷한 수업상황을 제공하고, 수업 후 자신이 분석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통해 경험적이고 암묵적인 실천적 지식을 이해할 때, 가르치는 기술 또한 효과적으로 발현 될 것이다.

셋째, 효과적인 교수기술에 대한 이해이다. 교수기술은 수업전략이나 계획 뿐 아니라 발문, 설명의 방법, 동기유발이나 강화와 같이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교수행동을 의미한다.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행동을 세분화하고 객관화하여 탐구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실연을 통해서 교수기술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계발 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업실연의 한 형태인 마이크로 티칭의 적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마이크로티칭 기법은 예비교사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의 가능성과 교수법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마이크로티칭은 특히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분석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한 후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주삼환, 2003). 그렇지만 마이크로티칭은 수업계획, 수업실행, 피드백과 평가, 그리고 재 수업이라는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수업행동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중등 음악과 예비교사 양성교육은 우수한 음악교사를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양성기관에서 다루지는 교과목의 내용 및 학습은 우수 음악교사 양성에 부합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교사로서의 핵심역량이 교과내용지식과 더불어 실천적 지식임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효과적인 수업실연의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김민정(2006). 교사의 실천적 지식 탐색: 연구동향 및 교육과정 연구에의 시사점. **교육연구논총**, 27(2), 89-108
- 김원정(2010). 예비 체육교사의 수업시연을 통한 자기수업반성에 관한 연

- 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25-52.
- 김혜숙(2006). 고등학교 초임과 경력지리교사의 실천적 지식 비교연구. *사회과교육*, 45(3), 91-113
- 백순근, 함은혜(2007). 중등 예비교사의 교육실습이 교육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0(4), pp. 1-29.
- 백순근 외(2007). 중등학교 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평가와 전문가평가의 비교연구. *교육평가연구*, 21(2), pp. 53-74
- 이경언(2007).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음악과 내용 교수 지식(PCK) 연구. 연구보고 RRI ;109-114. 서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정미경(2007). 교원양성교육에서의 좋은수업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 *교육과정연구*, 25(3), 247-264.
- 조영남(2011). 마이크로티칭과 초등예비교사교육. *초등교육연구*, 24(1), 65-84.
- 주삼환 (2003).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의 이론과 기법. 서울: 학지사.
- 진성희(2010). 초등예비교사들의 “교수역량”에 대한 자기성찰 및 강화방안. *한국초등교육* 20(2), 233-247.
- 허경철, 조덕주, 소경희(2001). 지식생성 교육을 위한 지식의 성격 분석. *교육과정연구*, 19(1), 231-250.
- Allen, D., & Ryan, K. (1969). *Microteaching*. Ontario: Addison-Wesley.
- Amobi, F. A. & Irwin, L.(2009). Implementing in-campus microteaching to elicit preservice teachers' reflection on teaching actions: Fresh perspective on an established practice. *Journal of Scholarship of Teaching and Learning*, 9(1), 27-34.
- Burden, P. R., & Byrd, D. M. (2007). *Methods for effective teaching: Promoting K-12 student understanding*. Boston: Allyn & Bacon.
- Clandinin, J. D.,& Connely, M. F. (1988). *Teachers as curriculum planners: narratives of experience*.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Elbaz, F.(1991). *Research on teacher's knowledge: The evolution of a discourse*. *Curriculum Studies*, 23(1), 1-19.

- Jensen, R. N.(1974). *Microteaching: Planning and implementing a competency-based training program*. 유혜령 역(1996). 서울: 문음사.
- Koehler, M. J., & Mishra, P. (2008). Introducing TPACK. In J. A. Colbert, K. E.
- Meijer, P. C., Zanting, A., & Verloop, N. (2002). How can student teachers elicit experienced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5), 406-419.
- MacLeod, G. R. (1987). Experimental Studies of the Outcomes of Microteaching. *South Pacific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9(1). 31-42.
- McIntyre, D. J., Byrd, D. M. & Foxx, S. M.(1996). Field and laboratory experiences. In Sikula, J., Buttery, T. J., & Guyton, E.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pp. 171-193), New York: Macmilan
- Oakeshott, M. (1962). *Rationalism in politics*. London: Methuen.
- Pajares, M. F. (1992). Teachers'beliefs and educational research: cleaning up a messy construct.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2(3), 307-332.
- Perkins, D. (2007). Knowledge alive. In A. C. Ornstein, E. F. Pajak, & S. B. Ornstein (Eds.), *Contemporary issues in curriculum*. Boston, MA: Pearson Education, Inc.
- Polany, M. (1958). *Personal knowledge: towards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Routledge & Kegan Paul.
- Schon, D. A.(1983). *Reflective knowledge: toward a post-critical philosophy*.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Shulman, Lee S.(2000). Teacher development: Roles of domain expertise and pedagogical knowledg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1(1), 129-135.

ABSTRACT

A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Teaching Demonstration in Secondary Pre-Service Music Programs

Jihyang O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and status of teaching demonstration led by secondary pre-service music teachers as well as the pre-service music teachers' perceptions regarding the teaching demonstration. To this end, this study distributed copies of a questionnaire to 360 students in their junior and senior years at ten teachers' colleges and graduate schools of education across Korea. The respondents turned out to have quite a good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teaching demonstration. They reported that they came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preparing for classes and communication skills as a result of leading teaching demonstration. They also reported an improved understanding of the teaching profession. They also pointed out that video recordings helped with their teaching. They also put the great emphasis on imparting the knowledge required by the curriculum in leading teaching demonstration. They believe that examples of teaching demonstration make their teaching more effective, and also that it is important for pre-service teachers to have a diverse range of demonstration methods in each discipline. The study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that would provide practical knowledge for teaching demonstration.

투고일: 1월 31일, 심사(수정): 3월 10일(3월25일), 게재 확정일: 4월 4일